



지나온 천년을 정리하고 새로 오는 천년(千年)을 준비하자

“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를 보내고 더 힘들고 어렵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양돈가족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오히려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계기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

1999년은 9자가 3개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지난 1,00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는 해가 된다. 한세기가 바뀌는 것과 는 의미가 크게 다르다.

새로운 역사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WTO체제가 출범되고, 후기 산업사회에서 정보산업사회로 넘어가며, 교통과 통신이 빠르게 변하면서 식생활 유통구조도 2천년 형으로 이미 변화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미리 피부로 느끼지 못할 따름이다.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며 우리 생활에서 이제는 없으면 모든 분야가 움직일 수 없는 컴퓨터도 2000년이 되면 날짜인식을 잘

못 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Y2K문제로 걱정들을 하지만 우리는 태평할 뿐인 것이다.

양돈산업도 2천년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생고기 위주의 소비에서 가공제품의 소비로 변하고 수출과 수입 등 물량에서도 생고기에서 가공제품 무역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포장 등 몇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양돈산업은 2천년을 맞이해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양돈농가의 부채문제이다. 외형에 비하여 과

다한 부채는 어느 시점에서 양돈농가의 사기를 저하하고 자포자기하게 하며 대외 신용의 하락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시한폭탄 임에 틀림없다.

둘째로, 산업구조의 재정비 문제이다. 현재의 양돈·중돈·사료·약품·유통 등 모든 연관산업이 병존(併存)하는 체제에서 서로 거래형 관계로 대립되어서는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하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양돈 선진국들이 조합체제나 아니면 기업중심의 계열화체제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을 우리는 남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금년 1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돈산업의 앞날을 밝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양돈산업에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축산발전기금이나 농특자금 등이 정부지원이거나 아니면 축협 등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금리로 양돈업에 자금이 들어오겠느냐 하는 문제이다. 수입수요의 증가는 낮은 마진이 불가피하고 은행금리(또는 정책자금 금리)로 양돈을 해서 원리금이 상환되도록 금리를 내리거나 마진을 높여야 하는데 이런 것이 어려울 경우 기술적인 보조 등 연구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넷째, 질병문제의 해결이다. 돈콜레라와 오제스키 박멸을 2천년까지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어린돼지의 설

양돈산업도 2천년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생고기 위주의 소비에서 가공제품의 소비로 변하고 수출과 수입 등 물량에서도 생고기에서 가공제품 무역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사병과 큰돼지의 호흡기 질병은 이제 연중 행사처럼 되어 연간 약 4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문제는 돼지고기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다섯째, 분뇨의 처리문제이다. 이 문제는 자원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법적인 뒷받침과 비료로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도축에서 소매단계에까지 낙후된 생산 이후의 처리가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농장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1년간 정부, 협회, 양돈농가가 힘을 합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해결되기가 어렵지만 최소한 발전의 발판을 만드는 일은 해 놓아야 한다.

2000년을 준비하는 1999년 한 해가 토끼처럼 빠르게,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착실히 준비하면 2000년대의 양돈산업은 성장산업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새해에도 양돈산업이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양돈농가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양돈**